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론



“하느님의 넉넉한 마음”

언젠가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있기 전날이었습니다. 봉사자 청년 두 명이 오후 늦게까지 성당에 앉아 열심히 캠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었냐?”고 물었더니 안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관으로 불러 라면을 삶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라면을 삶는 제 모습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물도 끓기 전에 스프부터 먼저 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라면을 끓일 때 찬물에 스프부터 넣어서 물하고 스프가 같이 끓도록 해 왔습니다. 청년들은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고 그리고 나서 스프는 맨 마지막에 넣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물과 함께 스프가 충분히 팔팔 끓어야지 더 그윽한 라면 맛이 난다고 우겼습니다. 사실 ‘라면을 먼저 넣든 스프를 먼저 넣든 뭐가 그리 대수냐?’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스프를 먼저 넣어야 더 깊은 라면 맛이 난다고 괜히 우기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스프를 먼저 넣어 삶은 라면이 맛있었던지, 그 청년들 라면 국물에 밥까지 다 말아 먹었습니다. 다음날 캠프 가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려고 아껴둔 밥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사고 체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나 주의’입니다. 라면을 삶을 때 ‘라면을 먼저 넣어야 하느냐? 스프

를 먼저 넣어야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라면을 먼저 넣어야 한다!’ 혹은 ‘스프를 먼저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독단과 독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도 주의’입니다. 라면을 삶을 때 ‘라면을 먼저 넣을 수도 있고, 스프를 먼저 넣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질문 앞에서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겠지.’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하는 회의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인간 사고의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다 일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물에 대해 판단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엿볼 수 있는 하느님은 어쩌면 ‘도도 주의’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께서 ‘나나 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시지만, 적어도 ‘수확 때까지’는 ‘도도 주의’를 견지하고 계십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그분께서는 가라지를 단번에 쳐 없애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지켜봐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베어버리지 않으시고, 심지가 꺾뻑거린다 하여 꺼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로부터 “고집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의미의 ‘고집’이 아니라 말 그대로 ‘똥고집’을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반성 많이 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쟁을 벌이고 또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스프보다 라면을 먼저 넣고 끓이는 것도 연습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의 넉넉한 마음도 배워 봐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참으로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너무나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성체의 선물을 건네려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 가득 성체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망동 본당 우병현 마태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세상의 밭에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자라지만, 수확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 같은 존재, 밀가루를 온통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다짐하며 정성되이 이 전례에 임합시다.

입당성가 : 33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본기도

†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지혜서 12장 13절, 16절-19절

안 내 : 지혜서의 저자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묵 상 : 지나치게 빨리 속단을 내려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불신앙인요, 증오와 교만입니다. 우리는 불신의 시대에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간절히 구하고 죄인들까지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화답송 :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제2독서 : 로마서 8장 26절-27절

안 내 :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신음하고 계십니다.

묵 상 : 결점이 있을수록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단점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써 주님의 도움을 더욱 청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13장 24절-43절

강 론 : “하느님의 넉넉한 마음”(1-2쪽)

예물준비성가 :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498번 ‘예수여 기리리다’

영성체 후 묵상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심성 중에 하나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고치려 합니다.
마치 가라지를 뽑아 깨끗한 밭을 만들려는 유혹입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는
나 자신도 쓸모없는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적이고 편협한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형제가 못 마땅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더라도
단죄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58번 ‘주의 말씀 듣고’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21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7월 24일(월) 20:30
- 장소 : 예천 본당
- 강사 : 김상현 프란치스코(청주교구)

▣ 제16회 초록빛 교실

(주제 : 숲은 우리의 쉼터)

- 일시 : 7월 29일(토) 14:00 - 30일(주일) 15:00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대상 :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개인/본당별 단체(선착순 150명)
- 참가비 : 1인 20,000원(3식 및 간식 포함, 숙박은 텐트 또는 피정의집 이용)
- 문의 : 초록빛 교실 담당자 010-3827-2275

■ 초등부 성소자 캠프

- 일시 : 8월 8일(화) 14:00 - 9일(수) 14:00
- 장소 : 한성연수원
- 대상 : 성소에 관심있는 남자 초등부(3-6학년)
-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편한 복장, 운동화, 샌들, 갈아입을 옷 등
- 참가비 : 1인 30,000원
- 신청 : 7월 31일(월)까지 사목국으로

▣ 여성 제39차 꾸르실료

- 일시 : 8월 10일(목) 16:00 - 13일(주일)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0,000원
- 신청자격 :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

▣ 치유세미나

- 일시 : 8월 18일(금) 15:00 - 20일(주일) 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강사 : 이보경 데레사 외
- 회비 : 10만원
- 신청 : 8월 10일까지
성령쇄신봉사회 010-8447-0111

▣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종신서원식

- 일시 : 8월 21일(월) 11:00
- 장소 : 송현동 본당
- 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안동교구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썬미숫가루(600g, 1만원, 1kg 1만6천원)
낙동강 청정지역에서 직접 채취한 썬
담당자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영양 토마스 고춧가루(주문판매)
전국 제일 고추생산지 영양 고추 100% 엄선 가공
담당자 : 오 수산나 010-3813-4405

▣ 성모승천대축일 성 예술 전례피정 soul stay

- 일시 : 8월 13일(주일) 16:00 - 15일(화) 13:30
- 장소 :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 참가비 : 15만원
- 신청 및 문의 : 054-971-0722, 010-9877-4739

▣ 2018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안내

- 개교 103주년,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대학, 의예과/간호학과 포함 의료보건 특성화대학
- 수시 2,597명/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61명 모집
- 원서접수 : 9월 11일(월)-15일(금)
- 입학상담 : 053-850-2580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 4장
혼인의 사랑

혼인과 동정성

158. “혼인을 하지 않은 많은 이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헌신적일 뿐만 아니라 종종 자신의 친구들 관계, 교회 공동체, 직업 생활에 힘을 쏟습니다. ……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자선과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바치기 위하여 혼인을 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매우 풍요로워집니다.”

159. 동정성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동정성은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중요성과 그 선포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 표징입니다(1코린 7.32 참조). 이는 또한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는”(마태 22.30) 하늘 나라의 완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동정성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곧 돌아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여 모두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만 집중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1코린 7.29). 그렇지만, 바오로는 동정성의 권장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 개인적 선택이나 바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1코린 7.6-8 참조).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1코린 7.25). 또한 바오로는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1코린 7.7)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른 소명의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이 성경 구절이 “혼인이 ‘열등’하다거나” 성적인 절제 때문에 “동정이나 독신이 ‘우월’하다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동정성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상호 보완되어 어떤 이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이는 저런 방식으로 더욱 온전해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헤일즈의 알렉산더는 어떤 의미에서 혼인성사가 다른 성사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 곧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라는 위대한 실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0. 그래서 “정절을 지지하고자 혼인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혀 대립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만약 특정한 신학적 전통에서 어떤 사람이 ‘완덕이

신분'(status perfectionis)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는 정절 그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복음적 권고를 바탕으로 하는 삶 전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한 사람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고의 정신에 충실할 때 사랑에서 나오는 완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완덕은 모든 사람이 이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1. 동정성은 상대방을 소유할 필요 없는 사랑의 상징적 가치를 담고 있어서 하늘 나라의 자유를 반영합니다. 동정성은 부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사랑에 비추어 하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여정으로서 부부 사랑을 실천하라는 초대입니다. 또한 부부 사랑은 다른 상징적 가치들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부 사랑은 삼위일체를 특별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온전한 일치를 이루면서도 그 안에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정은 그리스도론적 표징이 됩니다. 가정은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강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 되시어 인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 ‘한 몸’이 되어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헌신합니다. 동정성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표징입니다. 반면, 혼인은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역사적’ 표징, 곧 우리와 하나 될 것을 선택하시어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지상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동정과 혼인은 사랑의 서로 다른 방식이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계시되지 않을 때 …… 인간은 자기에게도 불가해한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생은 무의미합니다.”

162. 독신은 안일한 고독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독신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고, 장소와 일과 선택을 바꾸며,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기분에 따라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자유를 줍니다. 여기에서 혼인한 이들의 증언이 빛을 발합니다. 동정으로 부름 받은 이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계약에 너그럽고 흔들림 없이 성실하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표징을 많은 혼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헌신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배우자가 육체적으로 더 이상 매력이 없거나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부정의 유혹과 배우자를 떠나라고 부추기는 유혹이 많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는 병든 남편을 돌볼 수 있으며 이때에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한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하는 이의 존엄, 곧 카리타스를 반영하는 존엄이 빛나게 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모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자녀들이 있을 때에도 그들을 헌신적으로 온유하게 돌볼 수 있는 가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부모들이 예수님의 무상의 헌신적인 사랑의 표징이 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독신 생활을 하는 이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 헌신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위한 봉사로 나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오늘날 세속화는 평생을 지속하는 결합의 가치를 흐리게 하고 부부 헌신의 부요의 의미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애의 긍정적 측면들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 다음에 계속 -



바르셀로나의 그녀(1)

김동남 로사
(안동가톨릭문인회)

미혼의 아가씨라 해서 우리 모두 조금은 기대했었다. 상큼하고 날렵하고 어깨너머로 싱그러운 머리카락을 날리며 아가씨라는 단어와 함께 떠오르는 보편적인 그런 모습을.

순간, 안녕하세요? 하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버스 출입구에 올라선 그녀를 보았다. 한국에서라면 그 나이의 처자들이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에 돌입했을 목선과 허리선이 비슷한 작달만한 체구에 한국인이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의 구리 빛 피부, 게다가 멋대로 자란 웨이브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갈색과 회색이 뒤범벅이 된 머리카락이라니. 상대의 눈을 볼 수 없는 미러 선글라스는 또 뭔지 한마디로 예쁜 구석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 볼 수 없는 비호감 외모이다. 그런 우리의 심증을 눈치 챈 건지 우리에게 날아온 건 지중해의 뜨거운 햇볕에 15년이나 살았더니 피부와 머리카락이 이렇게 변모하였다는 변명 같은 그녀의 첫 멘트이다. 그러게나말게나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고 바르셀로나를 향한 여정의 첫 페이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래지않아 그녀는 외모가 우월하면 실력도 받쳐 줄 것이라는 나의 저급한 고정관념에 찬물을 끼얹었다.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녀의 해설은 시차 적응과 낯선 음식에 지친 우리에게 한 잔의 청량제 마냥 시원하고 명쾌하여 모름지기 가이드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진면목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 먼 곳까지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왔는데 그녀의 해설을 놓치면 뭔가 엄청 손해를 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등받이에 기대었던 상체를 곧추세우고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에 긴장감을 주며 그녀에게 집중하였다.

몬세라트 수도원에서 그녀는 인터넷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이 수도원에서 일반인들이 무료로 일박할 수 있는데 조건은 바로 산티아고 순례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여권의 도장이 바로 그 티켓이라니. 아! 산티아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 세상 모든 신자들의 로망 산티아고. 물론 800킬로미터의 대장정을 완주하지 않아도 이 멋지고 고결한 곳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다는 그녀의 설명에 순례자의 도장을 갖고 언젠가는 이곳을 다시 방문할 것이라는 꿈을 가져 보지만 가당치도 않은 욕심일까.

드디어 이 여행의 절정인 가우디의 ‘성가정성당’에 도착하였다. 1882년부터 짓기 시작한 이 성당은 가우디 사망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예정이라고 하니 인류사에 위대한 업적이 될 유적하나가 우리 생전에 완공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또한 축복이리라.

그녀는 ‘고난의 문’에 새겨진 수많은 조각상의 의미를 성경말씀과 관련하여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해설해 주었다.

“저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저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 분의 고뇌를 바로 느낄 정도로 조각상이 섬세하고 사실적입니다.”

신자인 내가 보기에 이 성당에 대한 그녀의 경외심이 대단하여 잠시 짬이 났을 때 그녀에게 물어 보았다.

“혹시 가톨릭 신자세요?”

“아니요, 신자는 아닌데 10년 넘게 성경과 가톨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다. 그녀는 결코 평범한 가이드가 아니었다. 나 같은 열치기 신앙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톨릭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론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다.

(8월 공소사목에 계속 됨)